

# 高麗後期 己巳銘 象嵌青磁의 製作年代問題에 대한 새로운 접근

李 喜 寬\*

— 차 례 —

- I. 머리말
- II 기존의 1269年說과 1329年說의 주요근거와 그 문제점
- III. 貢賦收取體制의 변화의 측면에서 본 己巳銘 象嵌青磁의 제작연대
- IV. 對元關係의 변화의 측면에서 본 己巳銘 象嵌青磁의 제작연대
- V. 맺음말 —干支銘 象嵌青磁의 제작시기와 제작배경—

## I. 머리말

고려시대에 제작된 상감청자 가운데에는 內底面의 중앙부에 己巳·庚午·壬申·癸酉·甲戌·壬午·乙未·丁亥 등과 같은 干支가 새겨진 대접이나 접시가 다수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干支銘이 있는 四耳壺·罍·馬上杯도 보고된 바가 있다.<sup>1)</sup> 이러한 간지들은 각각의 그릇들이 만들어진 해를 표시한 것이 분명한데,<sup>2)</sup> 이 절대연대를 밝히는 것은 고려시대의 청자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상감청자를 포함한 고려시대 청자의 편년문제를

\* 湖林博物館 學藝研究室長

1) 崔健 外,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青磁』, 海剛陶磁美術館, 1991, pp.9~36 및 鄭良謨·秦華秀, 『高麗陶瓷銘文』, 國立中央博物館, 1992, pp.78~111 참조.

2) 이제까지 보고된 干支銘은 己巳·庚午·壬申·癸酉·甲戌·壬午·乙未·丁亥 등 여덟 가지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덟 해에만 간지명 청자가 제작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발견된 것들일 뿐이다. 앞으로 새로운 간지명이 발견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다. 사실 乙未銘만 하여도 최근에 와서야 康津青磁資料博物館의 李龍熙 室長에 의해서 그 존재가 학계에 알려졌다. 그런데 이용희 실장의 말에 따르면, 이미 오래 전에 辛巳銘과 甲申銘 청자편도 본 기억이 있다고 한다. 이 점은 새로운 간지명을 가진 청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그만큼 큼을 알려준다. 이 점을 일깨워준 이용희 실장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편년작업이야말로 도자사 연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일에 속한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이 간지명들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己巳銘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발견된 간지명 상감청자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사명 상감청자—이것들은 각각 간지명 청자와 기사명 청자로 약칭하겠다—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간지명 청자들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3)</sup> 이러한 점들을 증시할 때, 문제의 기사년의 연대를 밝히는 것은 전체 간지명 청자의 제작시기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자 지름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기사명 청자의 제작연대는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sup>4)</sup>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둘로 나뉘어 있는데, 그 하나는 그것들이 1269년에 제작되었다는 것이고,<sup>5)</sup> 또 다른 하나는 그보다 60년이 뒤진 1329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sup>6)</sup> 양자 모두 주로 기사명 청자의 器形·文樣·釉色·胎土·굽·받침·燔造法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입장에 있는 학자들 모두 새로운 결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종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sup>7)</sup> 어쩌면 양자가 서로 상대편의 견해를 애

3) 간지명 청자에 주목해온 모든 학자들이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 4) 기사명 청자의 제작연대에 관한 1980년대까지의 연구성과는 鄭良謨, 「干支銘을 통해 본 高麗後期 象嵌靑磁의 編年」,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 海剛陶磁美術館, 1991, p.109 및 韓盛旭, 「高麗時代後期 干支銘 象嵌靑磁 研究史」,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 海剛陶磁美術館, 1991, pp.96~98을 참조하라. 그 후의 연구성과로는 鄭良謨, 「干支銘을 통해 본 高麗後期 象嵌靑磁의 編年」, 崔健, 「高麗時代後期の 象嵌靑磁와 陶磁觀에 관하여」,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 海剛陶磁美術館, 1991, 李鍾玟, 「14世紀 高麗象嵌靑磁의 研究」, 弘益大 碩士學位論文, 1992, 伊藤郁太郎, 「高麗靑磁をめぐる 諸問題—編年論を中心に—」, 『東洋陶磁』 22, 1994, 具一會, 「高麗時代 靑磁象嵌대접의 編年研究—干支銘이 있는 대접들을 中心으로—」, 『美術資料』 54, 1994 등이 있다.
- 5)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清閑舍, 1944, pp.123~127, 崔淳雨, 「高麗陶磁의 編年」, 『韓國의 美』 4 靑磁, 中央日報社, 1981 ; 『崔淳雨全集』 1, 學古齋, 1992, p.268, 鄭良謨, 「高麗陶磁의 窯址와 出土品」, 『韓國의 美』 4 靑磁, 中央日報社, 1981 ;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1991, pp.266~267 및 「干支銘을 통해 본 高麗後期 象嵌靑磁의 編年」, p.110, 崔健, 「高麗時代後期の 象嵌靑磁와 陶磁觀에 관하여」, pp.119~125, 李鍾玟, 「14世紀 高麗象嵌靑磁의 研究」, pp.21~24, 伊藤郁太郎, 「高麗靑磁をめぐる 諸問題—編年論を中心に—」, p.14, 具一會, 「高麗時代 靑磁象嵌대접의 編年研究—干支銘이 있는 대접들을 中心으로—」, pp.14~16 참조.
- 6) 中尾万三, 『朝鮮高麗陶磁考』, 學藝書院, 1935, 高裕燮(秦弘燮 編譯), 『高麗靑瓷』, 三星美術文化財團, 1977, pp.86~91, 尹龍二, 「高麗陶磁의 變遷」, 『潤松文華』 31, 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86 ; 『韓國陶磁史研究』, 文藝出版社, 1993, pp.137~139 및 「干支銘象嵌靑瓷의 製作時期에 관하여」,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 海剛陶磁美術館, 1991 ; 同改題 「14世紀의 干支銘象嵌靑瓷」, 『韓國陶磁史研究』, 文藝出版社, 1993, pp.215~219, 김영진, 『조선도자사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95(도서출판 춘추각에서 1997년에 재간행), pp.151~153 참조.
- 7)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1991년 해강도자미술관에서 개최한 고려시대 후기 간지명 상감청자 관련 학술회의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을 대표하는 학자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견해를 더욱 뒷받침해줄 수 있는 새로운 근거

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마저 지을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사명 청자의 제작연대문제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본고에서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거론해 보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 II. 기존의 1269年說과 1329年說의 주요근거와 그 문제점

己巳銘 청자의 器種으로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대접 및 접시 종류와 四耳壺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대접과 접시 종류가 수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사명 청자의 제작연대와 관련하여 집중적인 주목을 받아온 것 또한 이것들이었다. 이 장에서의 논의를 위하여 기사명 청자 대접과 접시의 구체적 형태·문양·유색·태토·굽·받침·燻造法 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sup>8)</sup>

기사명 대접은 內底面이 완만한 곡면을 이룬 內底曲面式대접(圖 1)과, 직경 약 6cm 가량의 內底圓刻이 있는 內底圓刻式대접(圖 2)의 두 종류가 있다. 후자가 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운두가 높다. 기사명 대접의 내면에는 雲鶴文(圖 3)·柳蘆水禽文(圖 2)·花卉鳥蟲文(圖 1)·蓮花唐草文(圖 4) 등이 주문양으로 상감되어 있으며, 외면의 주문양은 하나같이 逆象嵌이 퇴화된 線象嵌唐草文帶이다(圖 5). 「己巳」銘은 거의 대부분이 印刻象嵌된 것으로 판단된다(圖 6·7).<sup>9)</sup> 유약과 태토는 정선되고, 대부분의 경우 灰靑色을 띠지만 간혹 淡綠褐色을 띤 것들도 있다. 굽의 단면은 U자형이다. 일반적으로 굽바닥에 세 개의 硃石을 받치고(圖 5), 匣鉢을 덮어서 번조하였다(匣燻).

기사명 접시의 경우는 口緣이 원형인 일반적인 형태의 접시(圖 8·9)와 八角접시(圖 10)·花形접시(圖 11) 등이 있는데 모두 소형의 것들이다. 이 접시들의 내면에는 如意頭文·국화문·당초문대 등이 상감되거나, 화형접시의 경우 국화문·모란문·波魚文 등이 陽印刻되었으며 「己巳」銘은 印刻象嵌된 것이 많다. 유약과 태토는 기사명 대접과 마찬가지로 정선되었으며, 대부분 맑은 회청색을 띠고 있다. 굽의 형태나 받침의 종류나 번조법도 기사명 대접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기사명 청자의 제작연대를 1269년으로 보거나 1329년으로 보는 학자들 모두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丁亥銘 상감청자 대접과 접시편이라고 할 수

를 제시하지 못하고, 각각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에서 그치고 말았다(鄭良謨, 「干支銘을 통해 본 高麗後期 象嵌靑磁의 編年」, pp.109~111, 尹龍二, 「干支銘象嵌靑瓷의 製作時期에 관하여」, pp.116~118 참조).

8) 기사명을 포함한 간지명 청자들의 형태적 특징과 제작기법에 대해서는 최건의의 精緻한 분석이 있다(崔健, 「高麗時代後期の 象嵌靑磁와 陶磁觀에 관하여」, pp.119~123). 기사명 대접과 접시의 형태·문양·유색·태토·굽·받침·燻造法에 관한 아래의 기술에는 최건의의 분석을 참조하였다.

9) 鄭良謨, 「高麗陶磁의 窯址와 出土品」, p.271 참조.



圖 1. 青磁象嵌花卉鳥蟲文「己巳」銘大鉢，  
高 7.8cm，湖林博物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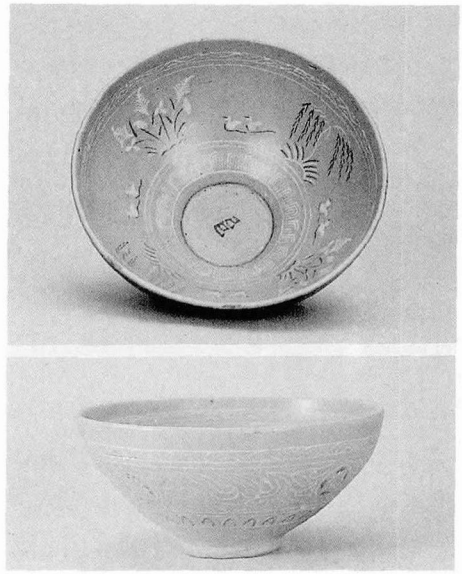


圖 2. 青磁象嵌柳蘆水禽文「己巳」銘大鉢，  
高 10.1cm，湖林博物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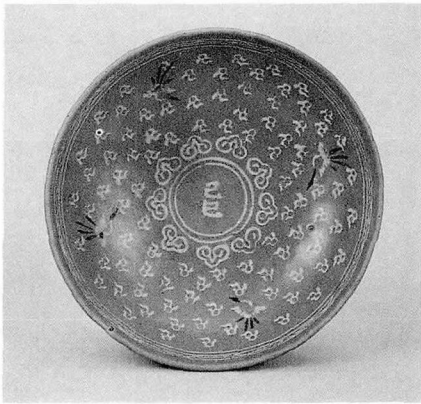


圖 3. 青磁象嵌雲鶴文「己巳」銘大鉢，  
高 5.3cm，湖林博物館 所藏



圖 4. 青磁象嵌蓮花草文「己巳」銘大鉢，  
高 7.0cm，國立中央博物館 所藏



圖 5. 青磁象嵌花卉鳥蟲文「己巳」銘대접, 高 7.8cm, 湖林博物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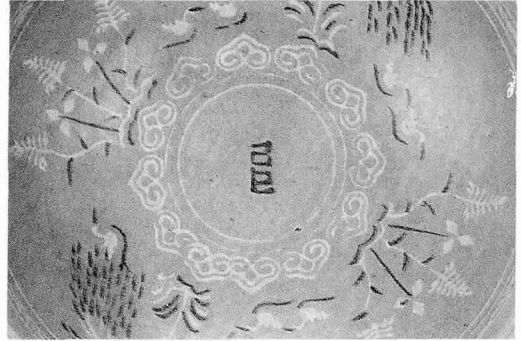


圖 6. 青磁象嵌柳蘆水禽文「己巳」銘대접의 부분, 高 7.2cm, 湖林博物館 所藏



圖 7. 青磁象嵌雲鶴文「己巳」銘대접의 부분, 高 5.3cm, 湖林博物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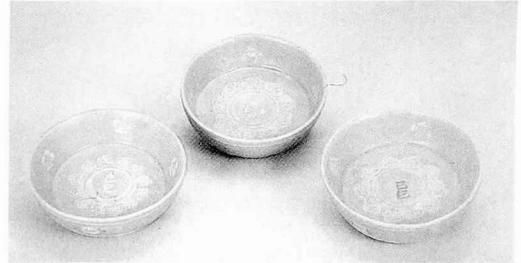


圖 8. (左)·(右) 青磁象嵌菊花文「己巳」銘접시, (左) 高 2.5cm, (右) 高 2.4cm, 海剛陶磁美術館 外 所藏



圖 9. 圖 8의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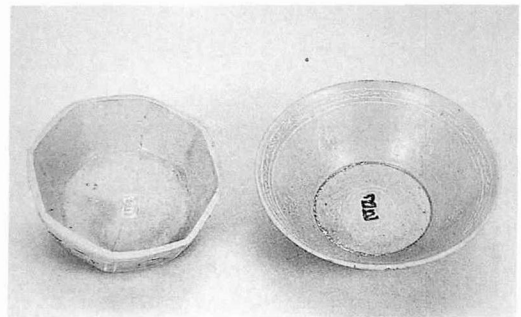


圖 10. (左) 青磁象嵌菊花文「己巳」銘八角접시, 高 3.6cm, (右) 青磁象嵌菊花文「己巳」銘접시, 高 4.6cm, 海剛陶磁美術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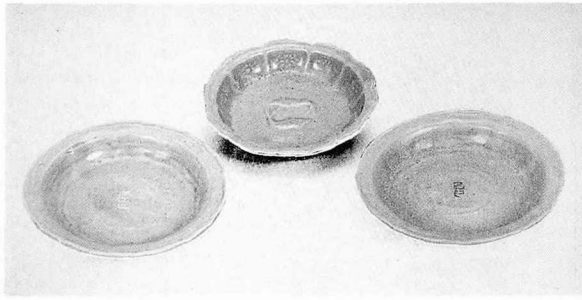


圖 11. (左)·(右) 靑磁陽刻·象嵌菊花文「己巳」銘花形접시,  
(左) 高 2.8cm, (右) 高 2.6cm, 海剛陶磁美術館 外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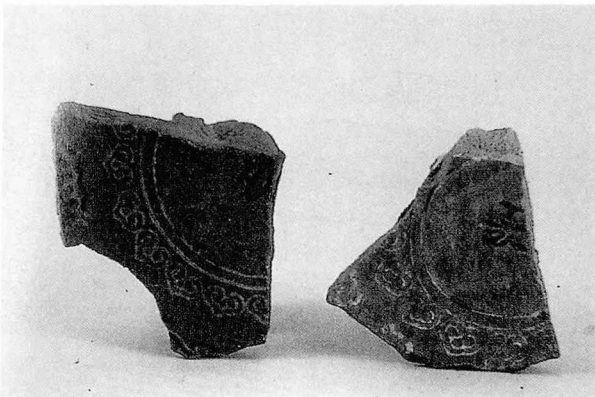


圖 12. 靑磁象嵌「丁亥」銘대접片, (左) 現高 3.0cm, 國立中央博  
物館 所藏

있다.<sup>10)</sup> 이 청자편들은 全南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 등에서 여러 차례 수습되었는데,<sup>11)</sup> 대접의 경우는 內底曲面式대접과 內底圓刻式대접이 있으며, 내면의 주문양은 유로수금문과 운학문 등으로 추정된다(圖 12·13). 접시들의 경우는 기형이 다양하며, 내면에는 운학문·유로수금문·如意頭文·連珠文·繩簾文 등이 상감되었다(圖 14·15). 「丁亥」銘은, 이제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모두 흑상감된 것들이다. 상감기법은 음각한 후에 상감한 것과 印刻象嵌한 것이 있는데, 전자가 대부분이다.<sup>12)</sup> 정해명 대접과 접시편들은 일반적으로 淡褐色을 띠는 어두운 회청색 계통이며, 태토는 불순물과 모래가 많이 섞여 거친 편이다. 모두 모래를 받치고 例燻한 것으로 보인다(圖 16). 이 정해명 대접과 접시는

일찍부터 1347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는데,<sup>13)</sup>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堂前마을 가마터에 있는 퇴적더미의 동일 지점에서 1341년~1367년 사이에 제작된 至正銘 상감청자 접시편과 정해명 접시편이 함께 수습된 바가 있다(圖 17·18).<sup>14)</sup>

1269年說의 입장에 선 학자들은 문제의 기사명 청자들이 형태·문양·유약·태토·제작기법

10) 정해명 상감청자 대접과 접시편의 형태적 특징과 제작기법에 관해서는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pp.124~125, 鄭良謨, 「干支銘을 통해 본 高麗後期 象嵌靑磁의 編年」, pp.109~111, 尹龍二, 「14世紀의 干支銘象嵌靑瓷」, p.219, 崔健, 「高麗時代後期の 象嵌靑磁와 陶磁觀에 관하여」, pp.119~123, 李鍾玟, 「14世紀 高麗象嵌靑磁의 研究」, pp.15~17이 참고된다. 각별히 최건과 이종민의 논문을 참조.

11) 정해명 대접과 접시편들의 수습 현황은 李鍾玟, 「14世紀 高麗象嵌靑磁의 研究」, pp.15~17에 소개되어 있다.

12) 鄭良謨, 「高麗陶磁의 窯址와 出土品」, p.271.

13) 이제까지 이 점에 의문을 제기한 학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정해명 대접과 접시편의 제작연대 추정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고 제 V장에서 자세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

14) 鄭良謨, 「高麗陶磁의 窯址와 出土品」, p.27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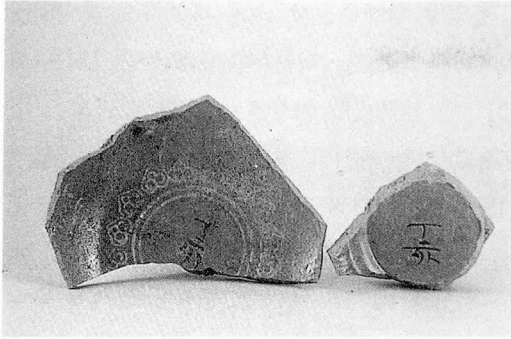


圖 13. 青磁象嵌「丁亥」銘대접시片, (左) 現高 4.2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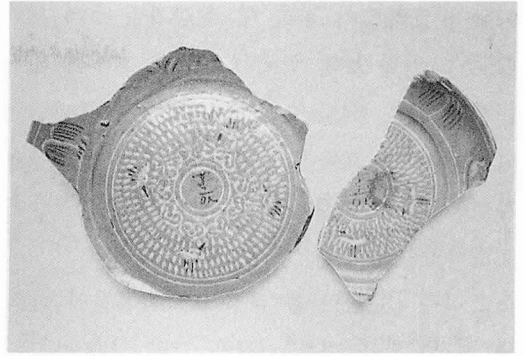


圖 14. 青磁象嵌「丁亥」銘접시片, (左) 高 4.0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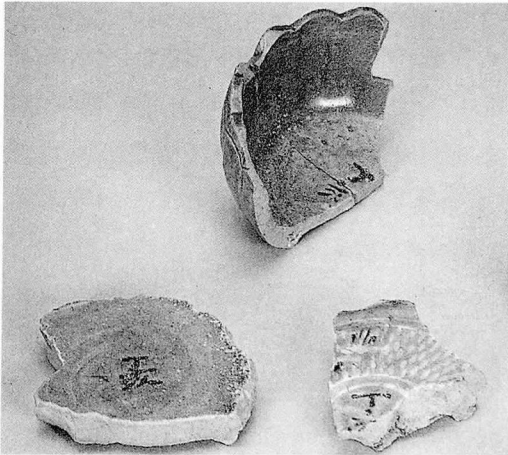


圖 15. 青磁象嵌「丁亥」銘접시片, (左) 長 8.5cm.  
海剛陶磁美術館 外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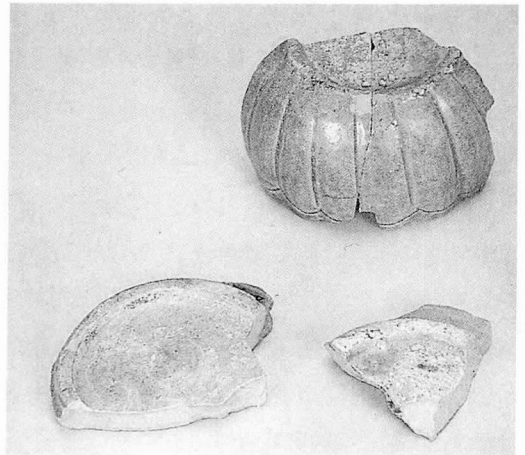


圖 16. 圖 15의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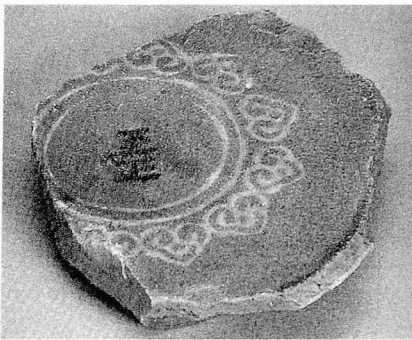


圖 17. 青磁象嵌「至正」銘접시片, 長 8.2cm,  
海剛陶磁美術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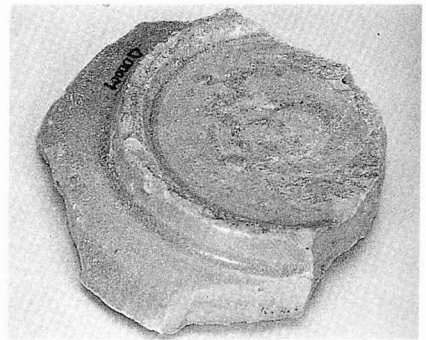


圖 18. 圖 17의 뒷면

이나 干支銘文의 筆法 및 상감기법 등의 면에서 정해명 청자편들과 크게 다르다고 파악하였다.<sup>15)</sup> 그러한 토대 위에서 이들은 기사명 청자가 제작된 문제의 기사년이 정해년 즉 1347년과 근접해 있는 1329년보다는 그로부터 60년이 더 소급된 1269년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와 같은 기사명 청자와 정해명 청자 사이의 형태적 그리고 제작기법적 차이를 1329년으로부터 1347년 사이의 기간, 즉 18년보다는 훨씬 오랜 기간의 변화의 결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329년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바라보는 기사명 청자와 정해명 청자의 형태적 특성과 제작기법에 대한 시각은 그와 정반대이다.<sup>16)</sup> 즉 그들은 양자의 기형·문양·유색·굽처리 등이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양자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입장에 선 그들이 1269년과 1329년 가운데 기사명 청자의 제작연대로서 후자를 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유물을 기준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기사명 청자의 편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기사명 청자와 정해명 청자의 형태적 특성과 제작기법 등을 바라보는 양자의 시각의 다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얼핏 보면, 동일한 두 부류의 유물—기사명 청자와 정해명 청자—의 형태적 특성과 제작기법에 대한 견해가 이와 같이 정반대로 나타난 것은 놀라운 일이다. 형태적 특성과 제작기법이 시각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러므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러한 정반대의 입장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애초부터 특정한 유물들이 형태적·제작기법적으로 유사하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다든지 하는 판단 자체에 보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는 한, 적어도 기사명 청자의 제작연대에 대한 견해가 하나로 모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인다.

기존의 시각으로 기사명 청자의 제작연대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이끌어내기가 힘들다면, 우리는 의당 새로운 시각에서 그것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그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는 것은 왜 문제의 기사년에 이르러 청자에 간지를 상감하기 시작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청자에 간지를 상감하는 것 자체가 전혀 새로운 방식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그러한 시각에서의 접근은 기사명 청자의 제작시기에 대한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이 점을 고려후기 청자를 포함한 貢賦 수취체제의 변화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장을 바꾸어 이 점을 살펴 보기로 하자.

15) 註 5)에 열거된 글들을 참조.

16) 註 6)의 글 참고. 각별히 윤용이의 두 논문을 참조.

### Ⅲ. 貢賦收取體制의 변화의 측면에서 본 己巳銘 象嵌靑磁의 제작연대

다 아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각 磁器所에서 만든 上品의 청자들이 중앙에 納付되었다.17) 己巳銘 청자들은 현재의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에 있던 자기소 즉 大口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일대에서 기사명 청자를 포함한 다수의 干支銘 청자편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18) 물론 이 청자들은 貢賦의 명목으로 중앙정부에 납부되었다.19)

이와 같이 공부의 대상이 된 청자의 제작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국가의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록이 이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A 趙浚이 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중략) 司饗이 매년 각 道에 사람을 파견하여 그 감독하에 궁중에서 쓸 瓷器를 굽는데, 이것이 일 년에 한 번 있는 例事로 되어 있으며, 公務를 빙자하고 사리를 추구하여 온갖 수탈이 자행되고 있습니다.(『高麗史』 118 趙浚列傳)

위 기록은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궁중에서 쓸 瓷器를 감독·제작하였음을 알려준다. 물론 이 자기들은 자기소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며 그 대부분은 上品의 청자였을 것이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면 자기소에서 제작되던 그 밖의 貢納用 청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20)

국가에서는 자기소에 파견한 관리들을 통하여 그 해에 제작할 청자의 수량을 하달하고 기종과 기형 그리고 문양 따위도 정해 주었을 것이다.21) 예컨대 기사명 청자를 포함한 간지명

17) 고려시대 자기소에서의 청자 납부체제와 관련해서는 北村秀人, 「高麗時代の「所」制度について」, 『朝鮮學報』 51, 1969, pp.34~48, 權丙卓, 『傳統陶磁器의 生産과 需要』, 嶺南大 出版部, 1979, pp.84~98, 金炫榮, 「고려시기의 所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論』, 서울大 國史學科, 1986, pp.113~120 참조.

18) 간지명 청자의 발견현황에 대해서는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pp.121~125, 鄭良謨, 「高麗陶磁의 窯址와 出土品」, p.266 및 p.271, 韓盛旭, 「高麗時代後期 干支銘象嵌靑磁 研究史」, p.96 참조.

19) 자기소에서 만든 청자들이 중앙정부에 공부의 명목으로 납부되었음은 다음 기록으로 미루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

判하기를, “京畿의 州縣은 常貢 외에 徭役이 煩重해져서 백성이 그것을 괴로워하여 날로 도망하고 流離하니 主管하는 官司에서는 界首官에게 물어 그 貢役의 多少를 酌定하여 시행하라. 銅·鐵·瓷器·紙·墨·雜所의 別貢物色은 거두어들임이 지나쳐서 匠人이 괴로워 도피하니 所管官司에 명령하여 그 각 곳의 別·常貢物의 多少를 酌定하고 上奏하여 裁決하라”고 하였다.(『高麗史』 78 食貨志 1 貢賦 睿宗 3년 2월 判)

단, 기사명을 포함한 간지명 청자들이 別貢으로 납부되었는지 常貢으로 납부되었는지는 위 기록만으로는 잘 알 수가 없다. 필자는 간지명 청자의 공납체제에 대하여 별고를 마련하여 자세히 검토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 사료 A의 내용은 고려말기의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청자의 감독·제작체제는 이미 고려 전기에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崔健, 「高麗時代後期の 象嵌靑磁와 陶磁觀에 관하여」, p.124 참조).

청자들의 경우 기종이 한정되고 기형이 매우 규격화되었으며 거의 획일적인 문양이 새겨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그러한 제작체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렇다면 공납용 청자에 새롭게 간지를 상감하게 된 것도 국가의 지시에 따른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기사년에 이르러 갑자기 공납용 청자에 그 해의 간지를 새겨 그것들이 기사년에 제작된 것이었음을 밝히게 한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사년 한 해 동안에 책정된 수량의 청자가 제대로 제작·납부되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였으리라 짐작된다.<sup>22)</sup> 이 점을 중시하면, 기사명 청자의 등장은 문제의 기사년에 이르러 청자의 공납체제가 새롭게 정비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공납체제의 정비가 비단 청자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 시기에 청자를 포함한 공부의 수취체제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보아오고 나면, 우리는 기사명 청자가 제작된 「己巳」年の 구체적인 연대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잡은 셈이다. 고려후기에 접어들어 공부수취체제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기사년을 찾을 수 있다면 그 해가 바로 문제의 기사명 청자가 제작된 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다음 기록들이다.

- B-① (忠烈王이) 敎하기를, “여러 도의 백성들이 전쟁 이후로 유망하고 생업을 잃었으므로 元宗 己巳年에 백성들의 戶口를 計點하고 貢賦를 다시 정하였다. 그 후로 세를 거둬고 고르지 못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다시 사신을 보내어 호구의 증감과 토지의 개간되고 황폐해짐을 헤아려 백성의 부담을 計定하여 백성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다. (『高麗史』 79 食貨志 2 戶口 忠烈王 18년 10월)
- ② 忠宣王이 田民計定使에게 諭하기를, “先王은 州縣을 설치하고 貢賦를 정하여 백성들에게 때맞추어 거두어 國用에 충당하였다. 전쟁이 일어난 이후 戶가 적어지고 토지가 황폐해져 貢賦의 수입이 예와 같지 않게 되었다. 己巳年에 헤아려 액수를 정한 이후로 提察과 守令들이 그 액수를 고집하고 거두어들이는 것을 중지하지 않아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이 매우 많다. 마땅히 현재의 토지와 호구로서 貢賦를 다시 정하되 백성들이 遊離하여들이 황폐해진 곳은 그 한 해에 한하여 면제해주고, 그 밖의 雜貢도 마땅히 詳定하되 줄 일지언정 늘리지는 말라. 무릇 모든 民弊는 적당하게 고치고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高麗史』 79 食貨志 1 貢賦 忠肅王 원년 정월)

21) 이와 같은 고려시대 공납용 청자의 監造體制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崔健, 「高麗時代後期の 象嵌靑磁와 陶磁觀에 관하여」, p.124를 참조.

22) 최건도 이 점과 관련하여, 당시 공납용 청자의 수급에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져 일 년에 생산하는 수량을 표시하기 위해 干支를 새긴 것으로 파악하였다(崔健, 「高麗時代後期の 象嵌靑磁와 陶磁觀에 관하여」, p.125).

위에 제시한 자료들은 고려후기 貢賦制의 개편과 관련된 기록들이다. 자료 B-①과 ②는 각각 공부수취체제를 개편하라는 충렬왕 18년(1292)과 충숙왕 원년(1314)의 敎와 諭이다. 고려시대의 공부제에 대한 믿을 만한 연구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는 시행에 옮겨졌지만, 전자의 경우는 논의만 되었을 뿐 시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23)</sup> 후자 즉 충숙왕 원년의 조치가 취해진 해의 간지는 「甲寅」이었다.

그런데 자료 B-①은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元宗 己巳年에 공부를 다시 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필시 이 때에 이르러 공부수취체제를 개편했다는 내용일 것이다.<sup>24)</sup> 자료 B-②도 동일한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때 개편된 공부수취체제가 충숙왕 원년 당시까지도 유지되고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원종 기사년은 1269년을 가리킨다.

1269년과 1314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고려후기에 있었던 또 다른 공부수취체제의 개편 사실을 찾을 수가 없다. 말하자면 고려후기에는 앞서 언급한, 두 번에 걸친 공부수취체제의 개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인데,<sup>25)</sup> 그 가운데 첫 번째 개편이 있었던 1269년이 바로 己巳年이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청자를 포함한 공부수취체제의 변화의 측면에서 볼 경우, 기사명 청자가 제작된 문제의 己巳年은 1269년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sup>26)</sup>

우리는 이러한 기사명 청자의 제작연대를 對元關係의 변화의 측면에서도 재확인할 수가 있다. 이 점이 다음 장에서 살펴 볼 과제이다.

23) 朴鍾進, 『高麗時代 賦稅制度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p.152 참조.

24) 원종 기사년의 공부수취체제의 개편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朴鍾進, 『高麗時代 賦稅制度 研究』, pp.148~151을 참조.

25) 朴鍾進의 견해에 따르면, 1269년(원종 10년)에 개편한 공부수취체제의 문제점이 노정되자 1314년(충숙왕 원년)에 이르러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고 한다(朴鍾進, 『高麗時代 賦稅制度 研究』, pp.152~155 참조).

26) 그러나 기사명 청자의 제작연대문제를 공부수취체제의 변화와 관련지어 생각한 것은 필자가 처음이 아니다. 이제까지 여러 학자들이 이 점에 주목해 왔다. 특히 具一會는 이 점을 깊이있게 추구하여 기사명 청자가 1269년에 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具一會, 「高麗時代 靑磁象嵌대접의 編年研究—干支銘이 있는 대접들을 中心으로—」, pp.14~16 참조). 그렇지만 氏는 당시 공부수취체제의 변화와 기사명 청자 제작의 필연적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氏도 결과적으로 기사명 청자의 제작연대를 미리 1269년으로 간주한 토대 위에서 양자의 관계를 연결지어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말하자면 氏는 기사명 청자의 제작연대문제에 연역적으로 접근한 셈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까지의 연역적 접근방법을 접어두고, 철저하게 귀납적으로 파악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持論이다. 구일회의 구체적인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기사명 청자의 제작연대문제를 공부수취체제의 변화의 측면에서 다시 추구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 IV. 對元關係의 변화의 측면에서 본 己巳銘 象嵌靑磁의 제작연대

지금까지 발견된 간지명 청자는 수적으로 대단히 많다. 심지어 충청남도 보령군 竹島 앞바다에서는 수십 점의 기사명 청자가 인양되기도 하였다.<sup>27)</sup> 현재 간지명 청자의 정확한 수량은 알 길이 없지만, 국내외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들만 헤아려도 족히 수 백 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8)</sup> 개인 소장품까지 염두에 두면 그 수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에 그만큼 많은 양의 공납용 청자가 제작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간지명 청자들이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사년부터였다.

기사년에 이르러 그와 같이 많은 양의 공납용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그 청자들을 공납받는 국가의 명령에 따른 결과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당시 공납용 청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한 해 동안 책정된 양의 청자가 제대로 제작·납부되는 지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하여 그것들에 간지를 상감하게 한 것은 그와 같이 증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이해된다. 아울러 간지명 청자의 器種을 제한하고 器形을 규격화하며, 획일적인 문양을 새기고 干支銘을 손쉽게 印刻象嵌한 것 따위도 그러한 대량생산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sup>29)</sup>

그러면 기사년에 이르러 왜 공납용 청자의 수요가 그렇게 크게 증가한 것일까. 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납용 청자의 용도와 각 용도별 소용량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수적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점들은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를 고려의 국내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문제의 기사년을 1269년과 1329년 가운데 어느 해로 보더라도 그것을 이러한 측면에서 적극적

27) 鄭良謨, 「高麗靑磁」, 『高麗靑磁名品特別展』, 國立中央博物館, 1989 ;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1991, p.219, 尹龍二, 「高麗陶磁의 變遷」, p.137 및 「14世紀의 干支銘象嵌靑瓷」, p.215 참조.

28) 국내외의 간지명 청자의 소장현황 전반을 알려주는 도록이나 보고서는 간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제까지 개최된 전시회에 출품되거나 도록 등에 수록된 간지명 청자의 수량으로 미루어 그 대략적인 수량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예컨대 1991년에 해강도자미술관에서 개최한 「高麗時代後期 干支銘象嵌靑磁」展에는 총 51점—陶片 포함—의 간지명 청자가 전시되었으며(海剛陶磁美術館,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象嵌靑磁』, pp.9~36 참조), 鄭良謨·秦華秀, 『高麗陶磁銘文』, 國立中央博物館, 1992, pp.78~111 및 pp.136~138에는 59점이 실려 있다. 그 밖에도 국립중앙박물관·湖巖美術館·湖林博物館·고려대학교 박물관 등과 같은 國·私立 박물관과 대학박물관들에 수 점에서 수십 점씩의 간지명 청자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외의 경우도 호놀룰루미술관·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東京國立博物館 등이 간지명 청자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국제교류재단, 『海外所藏 한국문화재』 5, 1996, pp.96~97, 鄭良謨·秦華秀, 『高麗陶磁銘文』, p.155, 한국국제교류재단, 『海外所藏 한국문화재』 4, 1995, p.160 참조)

29) 최건도 이 시기에 청자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단 氏는 그 원인을 국가에 대한 공납량의 증가에서 찾지 않고, 그릇의 주된 원료가 靑銅에서 청자로 변화되어 간 데에서 찾았다(崔健, 「高麗時代後期の 象嵌靑磁와 陶磁觀에 관하여」, pp.123~125 참조).

으로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sup>30)</sup> 이 점을 고려할 때, 공납용 청자의 수요가 그렇게 증가한 것이 元 간섭 하에서의 일이었으며 청자가 元에 대한 주요 공납 품목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을 떠올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sup>31)</sup>

元은 1219년(고려 高宗 6년 ; 元 太祖 14년) 고려와 형제관계의 외교를 맺은 이래 군사적 우위를 토대로 자주 貢物을 바칠 것을 요구하였다.<sup>32)</sup> 고려로서는 이를 전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1259년(고종 46년) 고려가 수십 년의 항쟁 끝에 元에 항복한 이후, 元의 요구는 공물에 그치지 않았다. 즉 元은 고려에 대하여 그 밖에도 이른바 복속국으로서의 六事를 지킬 것을 본격적으로 요구하였다.<sup>33)</sup> 元이 고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한 六事는 시기에 따라 약

- 30) 1269년을 전후한 시기는 고려정부가 아직 강화도에 머물러 있던 때였다. 그리고 당시의 실권자인 林衍이 원종의 폐위를 기도하여 일시적으로 그를 上王으로 몰려나게 하고 그의 동생인 安慶公 王涓을 옹립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어지러운 상황이었다(鄭修芽, 「무신정권의 붕괴와 그 역사적 성격」, 『한국사』 18 고려무신정권, 국사편찬위원회, 1993, pp.113~121 참조). 뿐만 아니라,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당시 고려정부로서는 자신의 경제적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六事를 비롯한 元의 정치적·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급급한 처지였다(李益柱, 「高麗·元關係의 構造에 대한 研究—소위 ‘世祖舊制’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36, 서울大 國史學科, 1996, pp.15~21 참조). 이러한 점 등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이 시기에 국내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공납용 청자의 수요가 그렇게 크게 증대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1329년을 전후한 시기의 경우도 당시의 매우 불안정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張東翼, 「麗·元의 政治的 關係」, 『高麗後期 外交史研究』, 一潮閣, 1994, pp.131~132 참조), 그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다만 여기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에 그릇의 주된 재료가 청동에서 청자로 변화됨에 따라 청자그릇들이 대량으로 제작되게 되었다는 최건의 주장에 잠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그 변화의 원인은 銅의 戰爭物資化와 元의 수탈에 있었다고 한다(崔健, 「高麗時代後期の 象嵌靑磁와 陶磁觀에 관하여」, pp.123~125 참조). 이러한 그의 견해는 고려 후기 陶磁産業의 변화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각을 청자 전반에까지 확대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당시 銅 징수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주로 일반 민들이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대다수의 지배귀족들은 이 징수로부터 사실상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는 위 변화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지배귀족이 아니라 일반 민들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납된 청자의 사용층은 바로 왕실을 포함한 지배귀족들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사실상 간지명 청자와 같은 공납용 청자는 위의 변화와 그다지 큰 관련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 시기에 공납용 청자의 수요가 크게 증대한 요인은 또 다른 데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 31) 元은 수시로 고려청자를 공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한 예를 다음 기록이 보여준다.

耽羅按撫使 忽都塔兒가 元에 갔다가 돌아 왔는데, 中書省에서 공문을 보내어 靑砂甕·盆·瓶을 요구하였다.(『高麗史』 30 世家 忠烈王 15년 8월 戊午)

즉, 충렬왕 15년(1289) 8월 元의 中書省에서 고려측에 靑砂甕·盆·瓶을 요구하였는데, 이 靑砂甕·盆·瓶이 청자를 가리킨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 32) 1219년 이후 고려와 元의 관계에 대해서는 高柄翊, 「蒙古·高麗의 兄弟盟約의 性格」, 『白山學報』 6, 1969 ;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70, 張東翼, 「麗·元의 政治的 關係」 및 「麗·元의 經濟的 關係」, 『高麗後期 外交史研究』, 一潮閣, 1994, 李益柱, 「高麗·元關係의 構造에 대한 研究—소위 ‘世祖舊制’의 분석을 중심으로—」를 참조.
- 33) 六事에 대해서는 高柄翊, 「蒙古·高麗의 兄弟盟約의 性格」, pp.178~183, 張東翼, 「麗·元의 經濟的 關係」, pp.133~138, 李益柱, 「高麗·元關係의 構造에 대한 研究—소위 ‘世祖舊制’의 분석을 중심으로—」, pp.28~

간 다르지만 대체로 元에 인질을 보내는 것, 군사를 내어 돕는 것, 군량미를 바치는 것, 驛을 설치하는 것, 戶籍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 達魯花赤을 설치하는 것 등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이 때에 이르러 元이 요구하는 공물의 양도 크게 늘어났을 것임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sup>34)</sup> 청자라고 여기서 예외였다고 볼 까닭이 없다.<sup>35)</sup>

그러나 고려에서는 元과의 전쟁 이후 自國이 경제적으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들어 그러한 元측 요구의 핵심사항들을 이행하는 것을 미루었다. 이에 대하여 元에서는 고려가 자신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협박하였다. 『高麗史』에 실려 있는, 이 시기에 양국 사이에 오고 간 외교문서들이 그와 같은 당시의 사정을 잘 전해 주고 있다.<sup>36)</sup>

그런데 흥미롭게도 1268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元이 자신들의 요구를 이행할 것을 고려측에 강요한 것을 끝으로 갑자기 한동안 그러한 요구를 해 온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이는 그 후 元이 자신의 요구를 철회하였거나 고려가 元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때문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실제로 있어서는 후자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C 侍中 李藏用으로 하여금 于也孫脫을 따라 蒙古에 가게 하여 황제에게 表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中略) 군대를 보내어 싸움을 도우라는 문제는 비록 피로한 백성들밖에 없지만 힘을 다하여 점점 준비하고 있으며, 병선을 준비하고 군량을 운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힘자라는대로 진행하여 장차 가져갈 것을 기약하고 있다. 達魯花赤을 불러다 두며 호적을 갖추어 바치는 문제는 우리가 바야흐로 바다에서 나와 진실로 修葺에 여유가 없으니 그 일이 끝난 다음 역시 마땅히 분부대로 稟裁하겠다. (中略)”고 하였다. 『高麗史』 26 世家 元宗 9년 4월 丙戌)

위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려는 1268년 4월 侍中 李藏用을 元에 보내 그들 이 요구한 핵심사항들을 곧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있어서 고려는 곧바로 이 약속을 실행에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록이 이를 말해 준다.

D-① 大將軍 崔東秀로 하여금 吾都止를 따라 蒙古에 가서 황제에게 上奏하였는데 대략 이르기, “돌이켜 보건대 우리 나라는 가장 번성할 때에도 백성이 오히려 적었는데 하물며 辛卯年 이래로 30년간 전쟁과 질병이 계속되어 죽은 자가 대단히 많았다. 이제 編戶가

31 참조.

34) 張東翼, 『麗·元의 經濟的 關係』, pp.133~138 참조.

35) 이 시기에 元에 대한 청자의 공납량이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고 제V장을 참조.

36) 예컨대 『高麗史』 25 世家 元宗 3년 12월 乙卯, 4년 3월 甲午, 4년 4월 甲寅, 9년 2월 壬寅, 3월 壬申, 4월 丙戌 등 참조.

운데 살아남은 백성들도 겨우 농사를 지어 살아갈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군대편제에 들어있는 자들도 또한 壯丁과 용맹한 자들이 없다. 그러나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 여러 방면으로 뽑아내어 겨우 만 명을 얻었으며 병선은 이미 바닷가 고을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바야흐로 자재를 갖추어 건조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高麗史』 26 世家 元宗 9년 8월)

- ② (忠烈王이) 敎하기를, “여러 도의 백성들이 전쟁 이후로 유망하고 생업을 잃었으므로 元宗 己巳年(1269년 ; 필자)에 백성들의 戶口를 計點하고 貢賦를 다시 정하였다. (中略)”고 하였다. (『高麗史』 79 食貨志 2 戶口 忠烈王 18년 10월)
- ③ 諫議大夫 郭汝弼을 元에 보내 表를 올려 말하기를, “(中略) 또 庚午年(1270년 ; 필자)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軍糧을 공급하여 왔기 때문에 벌써 양곡이 떨어지지도 오래되었다. (中略)”고 하였다. (『高麗史』 26 世家 元宗 15년 4월 甲子)

즉 고려는 元의 마지막 강요가 있었던 직후인 1268년(원종 9년) 8월에 이미 군사 징발과 병선의 건조에 착수한 상태였다(사료 D-① 참조). 그리고 사료 D-②에 따르면, 그 이듬해인 1269년(원종 19년)에 호구를 조사했는데, 이것이 원의 요구사항의 하나인 호적의 작성·보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sup>37)</sup> 그렇다면 그것과 함께 취해진, 공부를 다시 정한 조치—貢賦收取體制의 개편—도 같은 성격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up>38)</sup> 다시 말하면 그 조치를 취한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도 고려가 元에 항복한 이후 크게 늘어난, 청자를 비롯한 공물의 요구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사료 D-③은 1270년에 이르러서는 元에 軍糧까지 공급하기 시작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元 간섭기 내내 지속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1290년대에 접어들어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六事와 관련된 것인데, 元은 1293년에 고려에 선박과 軍糧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이후 六事와 관련된 요구를 거의 해오지 않았다.<sup>39)</sup> 이는 1294년 元 世祖의 죽음과 함께 일본 정벌이 사실상 중지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sup>40)</sup> 아무튼 이로 말미암아 고려측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元에 대한 부담도 歲貢을 비롯한 정례적인 공물이 주를 이루게 되었

37) 朴鍾進, 『高麗時代 賦稅制度 研究』, p.149.

38) 1269년에 있었던 공부수취체제의 개편은 앞서 언급한 호구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취해진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朴鍾進, 『高麗時代 賦稅制度 研究』, pp.149~150, 李益柱, 「高麗·元關係의 構造에 대한 研究—소위 ‘世祖舊制’의 분석을 중심으로—」, p.19 참조).

39) 元에서는 1293년(충렬왕 19년) 8월 萬戶 洪波豆兒와 寶錢庫副使 瞻思丁을 보내 선박과 軍糧을 관할케 했는데, 이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였다(『高麗史』 30 世家 忠烈王 19년 8월 참조). 그러나 이듬해 元 世祖가 죽고 일본정벌이 중지됨에 따라 그것도 철회되었다(『高麗史』 31 世家 忠烈王 20년 정월 癸酉 참조). 그 후 1309년(충선왕 원년) 3월 배 100척을 건조하고 미곡 3000석을 수송하라고 한 것을 제외하면(高麗史』 31 世家 忠宣王 원년 3월 甲辰), 六事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40) 『高麗史』 31 世家 忠烈王 20년 정월 癸酉 참조.

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물들은 주로 元의 황실에 바치는 것이므로 六事와 관련된 곡물이나 간지명 청자 등과 같이 대량생산된 일반 생활용기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물건들이었다.

E 황태자가 황제의 위에 오르니 그가 곧 成宗이다. 왕과 공주가 金盞·銀鏤葵花盞 각 한 벌, 金瓶·金鏤銀尊壺·湯瓶·酒瓶 각 한 벌, 半鏤銀尊·胡瓶 각 한 벌, 銀盃 81벌, 銀鍾 18벌, 紫羅 9필, 細苧 86필, 豹皮 18장, 水獺皮 81장 등을 바치고 예를 표하였다. (『高麗史』 31 世家 忠烈王 20년 정월 甲午)

즉, 위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들은 모두 금은제품이나 紫羅·細苧·豹皮·水獺皮 등과 같은 진귀한 물건들이었다. 그리고 비교적 소량이었다. 물론 이 시기에도 그 밖의 비정기적인 공납이 있었으나 그 물건들이 진귀한 것들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청자의 경우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렬왕이 1297년에 화려하기 그지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 바 畫金靑磁를 元에 바친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41)</sup> 요컨대 이 시기에는 간지명 청자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고급 청자들이 소량 공납되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 설 경우, 기사명 청자의 제작시기를 1290년대 중반 이후로 보기는 어려워진 셈이다. 이는 곧 기사명 청자의 제작연대에 관한 두 견해, 즉 1269年說과 1329年說 가운데 후자의 성립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설사 1290년대 중반 이후에도 기사명 청자와 같은 일반 생활용기가 元에 대한 공납품목에 들어있었을 가능성을 남겨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도무지 1329년을 전후한 시기에 고려에서 갑자기 그러한 청자들을 대량으로 공납하기 시작했음을 직접 보여주거나 또는 시사하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元 자체가 도자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토대로 도자기의 자급단계를 넘어, 오히려 龍泉窯와 景德鎮窯 등에서 생산된 뛰어난 품질의 도자기를 세계 각국에 대량으로 수출하던 때였다.<sup>42)</sup>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아도 기사명 청자의 제작연대는 1269년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sup>43)</sup> 말하자면 우리는 그 사실을 對元關係의 변화의 측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41) 『高麗史』 31 世家 忠烈王 23년 정월 壬午.

42) 三上友男, 「渤海·遼·金·元の陶磁器生産とその歴史的背景」, 『世界陶磁全集』 13 遼·金·元, 小學館, 1981, p.142, 長谷部樂爾·今井敦, 『中國の陶磁』 12 日本出土の中國陶磁, 平凡社, 1995, pp.118~120.

43)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현재까지 중국에서 기사명을 포함한 간지명 청자가 출토되었다고 보고된 바 없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고려시대에 많은 양의 청자를 중국에 공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고려 청자가 출토된 예 자체가 대단히 희소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 있어서의 고려 청자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최근 河北省文物研究所가 元代에 丞相을 지낸 史天澤의 묘에서 늦어도 1275년 이전—사천택은 1275년에 돌아갔다—에 고려에서 제작된 것이 분명한 靑磁象

## V. 맺음말 - 干支銘 象嵌青磁의 제작시기와 제작배경 -

이제까지의 검토를 통하여 고려후기 기사명 청자가 1269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으리라 믿는다. 그러면 그 밖의 간지명 청자들은 언제 제작된 것일까.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배경 아래에서 제작된 것일까. 이러한 점들을 음미해 보는 것으로 본 논의를 매듭짓고자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여덟 종류의 간지명 청자 즉 己巳銘·庚午銘·壬申銘·癸酉銘·甲戌銘·壬午銘·乙未銘·丁亥銘 청자들 가운데 경오명·임신명·계유명·갑술명·임오명 청자가 기사명 청자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제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최근에 알려진 을미명 청자도 그것들과 그다지 멀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수궁할 수 있는 견해가 아닌가 한다.<sup>44)</sup> 그렇다면 경오명~을미명 청자는 각각 순서대로 1270년(경오명)·1272년(임신명)·1273년(계유명)·1274년(갑술명)·1282년(임오명)·1295년(을미명)에 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해명 청자이다. 이제까지 모든 학자들은 이 정해명 청자의 제작시기를 1347년으로 추정하였다. 그 주요 근거는 이 청자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당전마을 가마터에 있는 퇴적더미의 동일 지점에서 1341년~1367년 사이에 제작된 것이 분명한 이른 바 至正銘 청자와 함께 수습된 바가 있다는 점과, 양자가 제작기법이나 형태적인 면에서 유사하다는 점 등이었다.<sup>45)</sup> 이 근거들은 얼핏 보면 정해명 청자의 연대추정에 결정적인 그것들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첫 번째 근거에 대한 의문은 가마터의 퇴적더미에서 수습된 파편의 연대추정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고고학적 층위개념을 적용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사실 가마터의 퇴적더미의 경우는 일반적인 고고학적 유적의 경우와 달리 층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퇴적더미가 형성된 곳의 위치나 지형, 그리고 퇴적될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층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嵌牡丹雲鶴文梅瓶(高 46cm)을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려청자라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河北省文物研究所, 『石家庄市后太保元代史氏墓群發掘簡報』, 『文物』 484, 1996, pp.51~52 참조). 그러므로 중국에서 간행된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간지명 청자의 출토상황을 제대로 알기가 힘든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강진의 청자요지에서 발굴·수습된 간지명 청자편과 西海에서 인양된 간지명 청자를 제외하면, 정식으로 발굴·보고된 간지명 청자의 예는 雲住寺址의 교란된 건물지에서 출토된 丁亥銘花形蓋의 경우가 유일하다(全南大學校博物館, 『雲住寺』 III, 1990, pp.49~50).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 중국에서 기사명을 포함한 간지명 청자가 출토되었다고 보고된 바가 없다는 점이 필자의 논의에 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44) 鄭良謨, 「高麗陶磁銘文의 性格」, 『高麗陶磁銘文』, 國立中央博物館, 1992, p.144.

45) 鄭良謨, 「高麗陶磁의 窯址와 出土品」, p.271.

위치에서 수습된 파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반드시 동일한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문체의 정해명 청자와 지정명 청자의 경우는, 그 수습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체계적인 발굴과정을 거쳐 수습된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게다가 그 퇴적더미 자체가 후대의 농지정리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교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46)</sup>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정해명 청자와 지정명 청자가 퇴적더미의 동일 지점에서 수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들이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두 번째 근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문은 정해명 청자와 지정명 청자가 제작기법이나 형태적인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점이 곧 양자가 동일한 시기에 제작되었다는 사실까지 말해준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도 양자가 제작기법과 형태적인 면에서 유사하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정해명 청자의 제작기법과 형태적인 면은 임오명·을미명 청자의 그것과도 대단히 흡사하다는 점이다.<sup>47)</sup> 특히 양자의 유색·태토·굽처리·받침·燔造法 등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sup>48)</sup> 즉 양자의 유색은 일반적으로 淡褐色을 띠는 어두운 회청색 계통이고, 태토는 불순물과 모래가 많이 섞여 거친 편이며, 거칠게 깎은 굽에 모래를 받치고 例燔한 것으로 보인다(圖 19·20 및 21·22). 이러한 사실은 정해명 청자에 보이는 제작기법이나 형태적인 면이 적어도 13세기 말기에서 14세기 중기에 걸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유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49)</sup> 그러므로 두 번째 근거 역시 성립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해명 청자의 제작연대를 1347년으로 볼 경우, 그 밖의 간지명 청자들이 제작되던 때로부터 거의 반 세기나 지난 후에 갑자기 다시 간지명 청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인데 이것은 여간 어색한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에 이르러 다시 간지명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흔적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해명 청자 역시 그 밖의 간지명

46) 예컨대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당전마을의 가마터 가운데 일부는 마구 교란되었으며, 심지어는 가마터의 일부를 논으로 만들어 논 바닥에 도자파편과 匣鉢 그리고 파괴된 가마의 파편이 가득한 곳도 있다고 한다(鄭良謨, 『高麗陶磁의 窯址와 出土品』, p.286).

47)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최건이 시사한 바가 있다(崔健, 『高麗時代後期の 象嵌靑磁와 陶磁觀에 관하여』, p.120 참조).

48) 鄭良謨·秦華秀, 『高麗陶磁銘文』, pp.107~111의 도판과 도판해설을 참조.

49) 이와 같이 도자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특징적인 면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비단 임오명·정해명·을미명·지정명 청자의 경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조선전기 백자대접의 경우도, 竹節 모양의 굽은 커다란 형태의 변화없이 거의 2세기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것으로 파악된다(이 점은 해강도자미술관 최건 학예연구실장의 교시에 따른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러므로 임오명·정해명·을미명 청자의 여러 특징적인 요소들이 약 반세기 후의 지정명 청자에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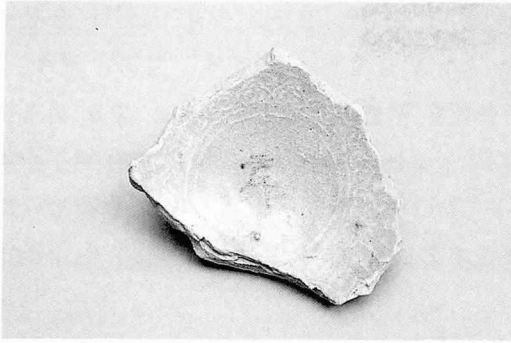


圖 19. 靑磁象嵌「壬午」銘대접片, 個人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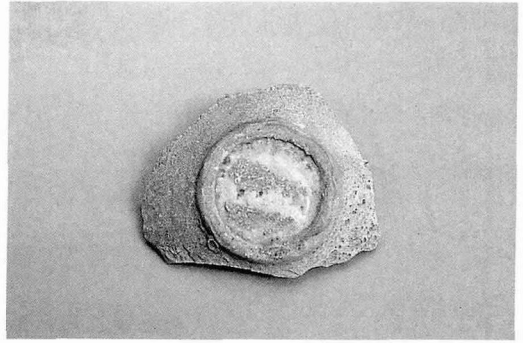


圖 20. 圖 19의 뒷면



圖 21. 靑磁象嵌「乙未」銘대접片, 個人 所藏



圖 22. 圖 21의 뒷면

청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3세기 후반에 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 더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간지명 청자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元에 공물로 바친 것 또한 바로 그 시기의 일이었다.<sup>50)</sup> 이러한 점들을 중시할 때, 정해명 청자의 제작연대도 이제까지 알려졌던 1347년보다 60년이 앞선 1287년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자료에 의거할 경우 간지명 청자는 1269년~1295년에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시기는 간지명 청자와 같은 일반 생활용기가 元에 대한 주요 공납품의 하나를 이루고 있던 때와 거의 일치한다.<sup>51)</sup> 이 점은 간지명 청자의 제작이 元에 대한 공납과의 깊은 관련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그런데 이 간지명 청자들은 제작시기를 기준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1269년~1274년에 제작된 기사명·경오명·임신명·계유명·갑술명 청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50) 본고 제IV장 참조.

51) 간지명 청자와 같은 일반 생활용기가 元에 대한 주요 공납품의 하나를 이루고 있던 때가 1269년경부터 1290년대 중반경까지였다는 점은 이미 본고 제IV장에서 설명하였다.

1282년~1295년에 만들어진 임오명·정해명·을미명 청자이다. 양자는 제작기법이나 품질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가 그릇의 굽에 硃石을 받치고 匣鉢에 넣어 구운(匣燻) 고급품인 반면에, 후자는 거의 대부분 모래를 뿌린 陶枕 위에 그릇을 놓고 번조한 것으로서 전자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편이다.<sup>52)</sup> 전자는 수적으로 간지명 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269년~1274년경에 그만큼 많은 수량의 간지명 청자가 元에 공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서 좋을 줄 안다.<sup>53)</sup> 그리고 그것은 또한 당시 元 자체 내의 도자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실제에 있어서 고려가 간지명 청자를 공납하기 시작할 당시 元의 도자산업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송대 이래 華北 지방의 도자생산을 주도해 온 定窯·磁州窯·耀州窯 등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후였다.<sup>54)</sup>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 최대의 靑磁窯와 靑白磁窯

52) 이러한 논리로 보면, 결국 1270년대 중반에서 128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에 그러한 제작기법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질적인 하락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에 그렇게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며, 아울러 고려청자의 전개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로서 파악된다. 여기에서 갑자기 그 원인을 단정지어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것이 간지명 청자의 갑작스런 대량생산과 깊은 관련이 있었으리라는 점은 인정해도 좋을 것 같다. 동일한 생산조건 아래에서 그와 같은 대량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燻造法 자체를 匣鉢에서 例燻—또는 常燻—체제로 변환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에 따라 청자의 질이 하락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일로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1270년대 중반 이후 元에 대한 간지명 청자의 공납량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고려청자는 그 이전의 높은 품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쇠퇴—적어도 품질의 측면에서 볼 때—의 길로 접어들었다. 元에 대한 간지명 청자의 공납량이 크게 줄어든 시기에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오명·정해명·을미명 청자의 질이 그렇게 낮았던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번조법의 변화에 대해서는 崔健, 「高麗時代後期の 象嵌靑磁와 陶磁觀에 관하여」, pp.122~123을 참조.

53) 그런데 1998년 5월 30일 전국역사학대회의 필자의 발표석상에서 여러 학자들이 당시가 三別抄의 亂으로 국가의 통제력이 크게 약화된 시기였다는 점을 들어, 과연 그 시기에 국가의 명령에 따라 대량의 간지명 청자가 공납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삼별초가 난을 일으킨 후 한동안 南海의 制海權을 장악하였다는 점을 떠올리면, 그러한 의문의 제기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일로서 여겨진다. 그러나 삼별초가 난을 일으킨 것은 이미 간지명 청자를 만들기 시작한 이듬해인 1270년 6월의 일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1271년 5월 김방경·혼도·홍다구 등이 이끈 고려·몽고 연합군에 의해 그들의 본거지인 珍島를 점령당하고 제주도로 쫓겨가게 되었다. 이 이후에도 삼별초는 1273년 진압될 때까지 항전을 계속하였지만, 그 이전과 같이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삼별초의 난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尹用燾, 「삼별초의 대몽항전」, 『한국사』 20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1994를 참고하라). 이렇게 볼 때, 삼별초가 강진의 大口所에서 청자를 제작하여 고려 중앙정부에 공납하는 루트를 실제로 차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는 1270년 6월~1271년 5월 정도가 아니었을까 한다. 요컨대 그 밖의 기간에는 삼별초가 대량의 간지명 청자를 제작·공납하는 데 그다지 큰 방해가 되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이 시기 간지명 청자의 제작·공납과 삼별초의 난 사이의 보다 구체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별고를 마련하여 자세히 검토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54) 화북지방의 대표적 白磁窯인 定窯의 변천과정 가운데 그 쇠퇴와 폐쇠과정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고 있지 않다. 많은 학자들은 河北省 曲陽縣 澗磁村 정요 가마터의 최하층에서 唐 말기의 도자파편이 출토되고 최상층에 北宋의 이른바 印花·劃花白磁파편들이 퇴적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정요가 北宋 말기까지만 존속한 것으로 파악하였다(佐藤雅彦, 「宋の白磁」, 『世界陶磁全集』 12 宋, 小學館, 1977, pp.156~173,

이던 龍泉窯와 景德鎮窯도 아직 南宋의 영역 내에 있었다.<sup>55)</sup> 그런데 1260년 世祖 쿠빌라이가 帝位에 오른 이후 元의 도자기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56)</sup> 말하자면, 당시 元의 도자 需給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크게 반전된 것은 1276년경의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해에 元은 실질적으로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원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당연히 남송의 도자산업을 떠받치던 용천요와 경덕진요를 비롯한 그 밖의 요들도 元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때부터 元의 도자산업이 번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비로소 간지명 청자가 1269년~1274년경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어 元에 공납된 까닭을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元의 도자산업의 침체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후에 간지명 청자의 제작이 크게 줄어든 것은 역으로 1276년경 이후 元의 도자산업의 번성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1276년경을 기준으로 그 이전 즉 도자산업의 침체기에는 元의 요구에 따라 대량의 간지명 청자가 제작·공납되고, 그 후 元 자체의 도자산업이 번성해져감에 따라 점차 제작·공납하는 간지명 청자의 수량도 감소되어간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

陳昌蔚, 「宋·元瓷器概述」, 『中國陶瓷』 3 宋·元瓷器, 光復書局股份有限公司, 1980, p.152, 金載悅, 「中國白磁의 時代別 특징에 대한 考察」, 『湖巖美術館 研究論文集』 1, 1996, p.119 참조. 그러나 마가렛 메들리는 그러한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12~13세기에 해당되는 정요 관련 유물들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요는 13세기 초에 이르러 쇠퇴하기 시작하여 1300년 경에 폐쇄되었다고 주장하였다(마가렛 메들리(金英媛 역), 『中國陶磁史』, 悅話堂, 1986, pp.132~138). 런던의 Percival David Foundation of Chinese Art에 소장되어 있는 大定 24年(1184)銘 陰刻文 陶型을 비롯한 12~13세기의 정요 관련 유물의 존재 등으로 미루어 볼 때(마가렛 메들리(金英媛 역), 『中國陶磁史』, p.132의 註 3 및 p.137과 長谷部樂爾, 「金代の陶磁」, 『世界陶磁全集』 13 遼·金·元, 小學館, 1981, pp.171~173 참조), 후자가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三上次男의 견해에 따르면, 磁州窯는 13세기에 접어들어 金과 蒙古·南宋 사이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크게 파괴되어 그 후 약 반세기 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三上次男, 「渤海·遼·金·元の陶磁器生産とその歴史的背景」, p.139). 이른바 北方青磁의 대표적인窯인 耀州窯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송대와 비교하여 金·元대에 들어와 상대적으로 쇠퇴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李知宴·鄭雯, 『中國陶磁史』, 株式會社美乃美, 1981, pp.96~98 및 長谷部樂爾, 「金代の陶磁」, pp.173~174 참조).

55) 佐藤雅彦, 「宋の白磁」, pp.173~176, 矢部良明, 「宋代青磁の展開」, 『世界陶磁全集』 12 宋, pp.187~219, 長谷部樂爾·今井敦, 『中國の陶磁』 12 日本出土の中國陶磁, pp.110~113, 陳昌蔚, 「宋·元瓷器概述」, p.153 및 pp.157~158, 金載悅, 「中國白磁의 時代別 특징에 대한 考察」, p.123 참조.

56) 元 세조의 즉위 이후 도자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三上次男, 「渤海·遼·金·元の陶磁器生産とその歴史的背景」, pp.139~142를 참조.

[ABSTRACT]

A New Study on the Date of the Inlaid Celadon  
Wares with the Cyclical Year *Kisa*(己巳)  
in the Later Koryo Period

Lee, Hee-gwan

In the latter Koryo dynasty, many kinds of the inlaid celadon wares were manufactured with the characters such as “Ki-sa(己巳)” · “Kyöng-o(庚午)” · “Im-sin(壬申)” · “Kye-yu(癸酉)” · “Kap-sul(甲戌)” · “Im-o(壬午)” · “Jöng-hae(丁亥)” · “Eul-mi(乙未)”. Each character means the year when the ware was manufactured and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years clearly.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make it clear when the wares with the character “Ki-sa” were made among many character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connected with “Kongbu(貢賦)”, a kind of taxes in Koryo dynasty to inlay the character “Ki-sa” in the celadon wares. In other words, there were many changes with “Kongbu” system in the year of “Ki-sa”. Then the years when that system was changed largely in the latter Koryo dynasty were 1269 and 1314 A.D. and 1269 A.D. was “Ki-sa” in the sexagenary cycle. Therefore I believe firmly that 1269 A.D. was the year when the inlaid celadon wares with the character “Ki-sa” were manufactured. It also can be proved through the relations between Koryo government and Yüan(元). Because it was the latter 13 century when Koryo government offered the wares like the inlaid celadon with the character “Ki-sa”.

It is clear that the inlaid celadon wares with the characters “Kyong-o”~“Eul-mi” except “Ki-sa” were manufactured in 1270~1295 A.D. Then the wares with these character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The one is the type of the wares with the characters “Ki-sa”~“Kap-sul” and the other is that with the characters “Im-o”~“Eul-mi”. The former had high quality but the latter had not. Koryo government offered mainly the former to Yüan government from the end of 1260’s to the middle of 1270’s when the

ceramic industry in Yüan dynasty was not out of a swamp of stagnation. As a conclusion, it was deeply related to the stagnation of the ceramic industry in Yüan dynasty that Koryo government offered the inlaid celadon wares with such characters.